

금고동 안정나씨 묘 출토 복식

羅安氏定

2011년 대전 유성고 금고동 안정나씨 종중묘의 이장 과정에서 나신걸의 부인 신창맹씨, 나부의 부인 용인이씨, 그리고 합장된 부부의 미라 이렇게 총 47기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무덤에서는 다양한 조선시대 복식 150여점이 함께 출토되었다.

신창맹씨(新昌孟氏)는 안정나씨 회덕파의 파조(派朝) 6세손 나연종(羅連宗)의 둘째 아들인 나신걸(羅臣傑, 1461~1524)의 부인으로, 남편의 생몰년에 비추어볼 때,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생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창맹씨 묘에서는 부패가 심하여 수습하지 못한 습의를 제외하고 소령의 15점, 대령의 7점, 산의 15점 등을 포함하여 40여 점의 복식 및 부장품들이 수습되었다. 출토된 의복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견직은 거의 삭이 없어졌으나 남아 있는 무명이나 삼베 등의 직물로 16세기 초의 의생활을 살펴 볼 수 있어 복식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용인이씨(龍仁李氏)는 8세손 충무위부사 나부(羅溥)의 부인이다. 용인이씨 묘에서만 70여 점의 복식과 명기 등이 출토되었다. 연화문, 세화문, 운문 등의 다양한 문양의 복식과 직금단 저고리 등이 출토되어 당시 화려한 여성 복식의 일면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장삼, 전단후장형 치마, 장치마 등 의례용 의복이 여러 점 출토되었고, 흔치 않게 배넛저고리도 출토되었다.

신창맹씨와 용인이씨 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안정나씨 부부합장 묘가 미라 상태로 발굴되었다. 남편 관 명정 상단에 '통'자만 어렵듯이 남아 있어 피장자가 누구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미라의 상태가 비교적 깨끗하였고 보존상태가 좋아 습의 등 약 25점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부인 묘는 손상이 심해 수습한 복식의 양이 소령의까지 15점 정도이다.

전시를 만든 사람들

총괄	류용환 대전시립박물관장
전시기획	김혜영 대전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전시진행	김은선 고윤수 김보배 대전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남은별 대전시립박물관 학예연구원
전시보조	이건희 박보나 박상준 대전시립박물관 학예연구원
복식유물 보존처리	부산대학교 한국전통복식연구소
금사복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성유복원연구소
전시디자인	디자인드바이엠
전시시공	(주)디스케일

관람안내


개관시간 하절기(3월~10월) 10:00~19:00
동절기(11월~익년 2월) 10:00~18:00


관람료 무료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명절

대중교통 안내

 106 115 312 706 11 601 종점

 106 유성온천역 환승 312 구암역 환승

 유성온천역 ▶ 대전역사박물관(7분)
유성시외버스터미널 ▶ 대전역사박물관(9분)

대전시립박물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398 (상대동 488)
Tel. 042.270.8600~1 Fax. 042.270.8633
http://museum.daejeon.go.kr

2016
대전 안정나씨(安定羅氏) 묘
출토복식 특별전

Joseon Dynasty's Costume
from Anjeong Na Clan's Donation

그리움을 집고, 연정(戀情)을 짓다

2016. 4.29-8.28

대전시립박물관



금고동 안정나씨 묘 이장과 문화재 조사

羅安氏定

조선시대에는 장례를 치를 때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관이 들어갈 자리 둘레에 회곽을 만들었다. 석회, 모래, 황토를 골고루 섞어 다져 만든 회곽은 방수, 방충, 방부의 효과를 가져와 다른 묘제에 비해 복식, 미라, 인골 등의 출토 비율이 높은 편이다. 조선시대 묘제 발굴과 유물 수습은 주로 이장을 하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전 금고동 안정나씨 묘 발굴도 역시 종중묘의 이장과정에서 진행되었다.

안나정씨 묘 출토 유물은 2011년 5월 금고동 산110-3번지 일원의 안정나씨묘 16기를 이장하는 중 부패되지 않은 47기의 미라가 발견되면서 수습되었다. 종중의 결정에 따라 수습된 부장품들은 모두 대전시립박물관에 기증되었고, 부산대학교 한국전통복식연구소를 통해 2015년 보존처리가 완료되었다.

출토된 유물중 나신걸(羅臣傑, 1461~1524)이 부인 신창맹씨에게 보낸 편지는 지금까지 발견된 한글편지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삼, 명기, 장군, 갓구슬 등 다양한 부장품이 발견되어 조선 전기의 상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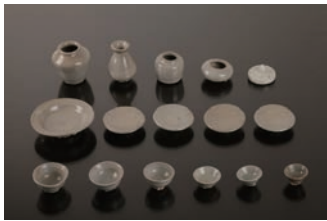


유물 수습 장면

한글편지 출토 장면

INTRO

조선의 상례문화



안정나씨 부부합장묘 명기

安定羅氏 夫婦合葬墓 明器 | 16세기 후반 ~ 17세기 초반

죽은 자의 내세를 위하여 특별히 만들어진 기물로 무덤에 함께 부장하는 꺼묻거러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만들어졌는데, 삼국시대는 주로 상례용으로 화려하게 제작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생활용기로 대신한 예가 많았다. 조선시대 명기들은 주로 순백자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백자 명기는 16세기 초반부터 17세기 후반까지 주로 나타나며 왕실을 비롯한 사대부 계층에서 사용된 의례용품이다. 사발, 접시, 합, 병 등 실생활에 쓰이는 물건이나 인물상을 백자로 작게 만들어 명기로 부장하였다.

PART. 1

기다리는 마음



나신걸이 부인에게 쓴 한글편지

諺簡 | 15세기 말

안정나씨 나신걸羅臣傑, 1461~1524의 부인인 신창맹씨新昌孟氏묘에서 출토된 유물로 편지는 총 2장이며, 여러 번 접힌 상태로 출토되었다. 군관으로 멀리 나가있는 남편 나신걸이 고향에 있는 부인에게 보낸 것인데, 편지의 뒷장에 '회덕 온양댁'이라고 수신인이 적혀 있다. 편지의 내용 중에 '영안도'의 군관으로 간다는 내용이 있는데, 영안도는 함경도의 옛 지명으로 1470년부터 1498년까지 사용한 지명이다. 따라서 이 편지를 쓴 시점은 적어도 1498년 이전이다. 특히 아내 신창맹씨에게 분과 바늘을 사 보낸다는 내용을 적고 있어 부부간의 애뜻한 정을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오래된 한글 편지로, 한글을 창제한지 50여 년 만에 한글이 충청 회덕지방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명확한 출토 경위를 지니고 있어 역사학, 민속학, 국어학적으로 가치가 매우 크다.

PART. 2

화려한 조선 사대부 여인

용인이씨 무문단 장삼

龍仁李氏 無紋緞 長衫 | 16세기 중반

장삼長衫은 승려나 기생이 입었던 옷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실록에 따르면 장삼은 여성의 장삼이다. 장삼은 문헌에만 기록되어 있다가, 안동 일선문씨 묘에서 출토되면서 실제 유물로 확인되었다. 실록에 따르면 고려 기생들이 모두 황장삼黃長衫을 착용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장삼의 역사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女妓의 복식 말고도 장삼은 왕실이나 사대부가 여성이 의례용으로 착용하거나 상복喪服으로 이용되거나 하였다. 한편 『악학궤범樂學軌範』에 흑장삼黑長衫의 도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앞길의 젓허진 깃謹諱과 남초藍綃;쪽빛의 비단이 명시되어 용인이씨묘에서 소렴으로 출토된 장삼과 형태 및 소재 면에서 일치한다. 이 장삼은 일선문씨 장삼과 같이 영성한 바느질로 제작되어 평소에도 착용하던 것이 아닌 수의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용인이씨 의례용 치마

龍仁李氏 裳 | 16세기 중반

조선시대 치마는 크게 의례용 치마와 평상용 치마로 나눌 수 있는데, 의례용 치마는 평상용 치마보다 길거나 화려하다. 용인이씨 묘에서 소렴으로 출토된 화려한 의례용 치마 두 점이 눈길을 끈다. 두 치마가 겹쳐서 엄습되어 있었는데, 안쪽의 운보문단의 치마는 앞면의 일부를 일자로 접어 고정된 형태로 앞이 짧고 뒤가 긴 전단후장형前短後長形치마이다. 운보문단의 치마 위에 덧입혀진 치마는 초縹로 제작되어 안이 흰히 비쳐 보이는 특징의 장치마로 출토 사례가 희귀하여 향후 연구의 귀추가 주목된다.

용인이씨 연화문단 장삼

龍仁李氏 蓮花紋緞 長衫 | 16세기 중반

장삼長衫은 승려나 기생이 입었던 옷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실록에 따르면 세조대에 세자빈 간택시 보내는 물목에 포함되어 있다. 또 광해군대에 명부命婦 회합에 입참入參하는 사람은 장삼을 입으라는 전교가 있어 왕실 및 사대부 여인들이 의례용으로 착용하였던 옷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용인이씨 연화문단 장삼은 이를 입증하는 유일한 예로 습의 중 가장 곁에 입은 채 출토되었다. 소렴으로 출토된 무문단 장삼 및 일선문씨 장삼과 다르게 연화문단의 비단에 섬세한 바느질로 제작되어 수의가 아닌 생전에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입右衽으로 여겨져 운문단 대대를 동심결로 맺고 있었다. 앞깃의 형태는 무문단 장삼과 동일하며 소매에는 명주를 이어 붙여 길게 만들었다.



PART. 3

영원히 함께한 부부

안정나씨 부부 남편 철릭

安定羅氏 夫婦 男便 帖裏 | 16세기 후반 ~ 17세기 초반

철릭은 직령깃의 옷깃에 주름잡은 치마裳을 연결시킨 남성의 포이다. 의츠와 상裳의 비례는 시대에 따라 변화가 큰 부분으로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 15세기에는 의츠의 길이가 상裳에 비해 상당히 긴데 비해 16세기에는 1:1의 비례로 변화하며 17세기부터는 상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게 되어 18세기가 되면 거의 1:2에 이르게 된다. 안정나씨 부부 남편 묘에서 두 점의 철릭이 출토되었는데, 둘다 거의 1:1의 비율로 의와 상이 구성되어 있다. 안정나씨 부부합장묘는 묘주가 확실치 않아 복식 및 부장품을 통해 연대를 추정하여 그 주인을 밝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